

KMI 북방물류리포트

VOL.166
APR 9 2021

발간년월 2021년 4월 9일 (통권 제166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장영태 총괄 이주호 감수 최재선 담당 김엄지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TEL +82-51-797-4776 FAX +82-51-797-4659



주요 동향

- 핀란드 아커 아틱, 쇠빙 컨테이너선 디자인 개발
- NSR은 수에즈운하의 대체항로가 될 수 있는가?
- 러시아 철도공사, 복합운송 전자운송장 시범사업
- 러시아 푸틴 대통령, 극동개발 부진 이유를 묻다.
- 중앙아시아·몽골, 온라인 에너지 워크 개최 예정

주요 통계

- 2021년 2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
- 2021년 1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품목 규모
- 2021년 1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입 규모



주요 동향



핀란드 아커 아틱, 쇠빙 컨테이너선 디자인 개발

그림. Aker Arctic社 쇠빙컨테이너선 디자인



자료: Aker Arctic

■ 최근 초대형 컨테이너선 좌초로 수에즈 운하 통행에 차질이 빚어진 가운데, 핀란드 아커 아틱 사가 쇠빙컨테이너선 디자인을 개발^{a)}

- 3월 말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그린 호의 좌초 사고로 수에즈운하 운항이 중단된 가운데 핀란드 아커 아틱(Aker Arctic) 사가 쇠빙 컨테이너선박 디자인을 선보였음
- 수에즈운하 통행이 막히고 나서 일부 선박들은 아프리카로 우회하여 운항하기 시작했는데, 이 경우 수에즈운하를 통과하는 것에 비해 운항기간이 2주 정도 더 소요되고 수백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됨
- 러시아 북방항로(NSR)를 이용할 경우 중국에서 중앙 유럽항만까지의 거리는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는 것에 비해 40% 줄어드는 이점이 있으나, 이 경우 쇠빙 지원선의 이용 요건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 특히 무엇보다도 북극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은 내빙 선체가 요구되어 북극해역을 운

항할 수 있는 컨테이너 선박이 거의 없는 실정임

- 이번에 아커 악틱 사가 개발한 쇄빙컨테이너 선박 디자인은 여름과 겨울철 모두 NSR를 이용할 수 있는 8,000TEU 선박임
- 이 쇄빙 컨테이너선은 Arc-7 내빙 선체, 쇄빙 기능을 가진 둥근 모양의 선수, 혹한기 운항에 필요한 추가적인 기능은 물론 이중 작동 시스템 등을 가지고 있음
- 아커 악틱 사 연구진에 따르면, 쇄빙컨테이너선은 쇄빙선 지원없이 단독으로 북극항로 운항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가 있고, 겨울철에 적절한 속력으로 운항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운항 일정이 안정화 되면 NSR 운항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는 이점이 있음
- 다만, 연료가격, 연료 종류, 컨테이너선 적재율 등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수에즈운하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 수익성이 생기는 구체적인 시점을 아직 언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임

김지혜 전문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hkim85@kmi.re.kr/051-797-4767)

참고자료

- a) <https://thebarentsobserver.com/en/arctic/2021/03/suez-canal-blockage-continues-aker-arctic-introduces-icebreaking-container-ship-top>(2021.4.7. 검색)

NSR은 수에즈운하의 대체항로가 될 수 있는가?

■ 러시아, 최근 수에즈운하 좌초사고를 계기로 NSR를 대체 항로로 적극 홍보 a)b)

- 최근 수에즈운하에서 좌초된 컨테이너 선 사고를 계기로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이 NSR를 대체 운항로로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 특히, 러시아 북극 국제협력 대사 니콜라이 코르추노브는 “수에즈운하 사고를 계기로 모두 전략적인 해상로를 다변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림. 수에즈운하에 좌초된 에버그린 호



자료: rogozin_do/Telegram

■ 높은 운항비용, 환경 영향, 선박 통항량 등 대체 항로로서의 회의론도 대두 b)c)

- NSR는 지리적인 요소로 수에즈운하에 비해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운항시간이 덜 소요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수에즈운하보다 3배 가량 많은 운항 비용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에 대해 러시아 관계자들은 NSR 운송비용을 인위적으로 낮춰 이 항로의 이용 빈도를 높이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러시아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는 장기적으로 NSR를 통한 운송 비용이 수에즈운하보다 더 낮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러시아는 앞으로 별도의 연방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 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하지만, 또 하나의 단점으로는 환경적인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세계적인 컨테이너 해운기업인 MSC(Mediterranean Shipping Company) 등은 NSR을 이용할 경우 환경 파괴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이 지역 운항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임
- 마지막으로 NSR 선박 교통량과 운항 허가 신청 건수가 감소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2021년 1분기 NSR의 물동량은 전년 대비 3.9% 감소한 750만 톤을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발행된 운항 허가 건수도 전년 대비 10% 감소한 56건에 그쳤음
-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경제적인 에버기븐 좌초 사고가 단기적으로는 NSR의 매력도를 높일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NSR가 얼마나 매력 있는 운송 옵션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임

김지혜 전문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hkim85@kmi.re.kr/051-797-4767)

참고자료

-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russia-suez-touts-arctic-sea-route/2021/03/29/576f6794-9097-11eb-aadc-af78701a30ca_story.html(2021.4.7. 검색)
- <https://www.themoscowtimes.com/2021/03/26/could-russia-benefit-from-the-suez-canal-blockage-a73385>(2021.4.7. 검색)
- <https://thebarentsobserver.com/en/arctic/2021/04/russias-northern-sea-route-push-met-scepticism>(2021.4.7. 검색)

러시아 철도공사, 복합운송 전자운송장 시범사업

■ 러시아 철도공사가 복합운송을 하는데 필요한 전자운송장을 도입하기 위해 범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육로 운송장 시범사업 시작

- 러시아 철도공사 유리 수로진(Yuri Surodin) 부수석 엔지니어는 최근 열린 ‘운송산업의 디지털화 : 성과, 효율성, 전망’이라는 컨퍼런스에서 러시아가 복합운송을 할 때 전자운송장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음
- 그는 현재 전자운송장 도입을 위한 첫 단계 사업을 마쳤으며, ‘프로젝트 Intertran’이 실현됨에 따라 복합운송을 위한 전자운송장 발급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 현재 블라디보스토크 항만에서 벨라루스까지 철도화물 운송의 경우 디지털화가 가능하며, 더 나아가 해상운송을 위한 전자문서 발행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유리 수로진은 향후 독일 무르란시에서 발티스크항을 걸쳐 러시아 칼리니그라드스크 주까지 디지털 운송을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계획은 중국까지 운송을 목표로 한다는 입장임
- 결론적으로 현재 발급 가능한 범용적인 도로 전자운송장을 통해 해송 및 철송에도 사용 가능하게 할 예정임

■ 러시아의 경우 전자운송장이 아직 법적인 효력이 없어 전체 운송 계약에서 약 6~7%만 사용되고 있는 실정

- 유라시아 화물 운송에 관한 국제 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on Trans-Eurasian Transportation)의 러시아 사무국장 제나디 베스노프(Gennady Bessonov)에 따르면, 러시아의 경우 법적이 효력이 없어 전자운송장 사용이 저조하다는 것임
- 그는 운송산업의 디지털화는 향후 5~10년간 중요한 주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오늘날 글로벌 정보시스템 구축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또한 컨테이너 복합 운송 시 전자운송장을 발급해주는 ‘Intertran 프로그램’이 있으나 아직 국제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언급하였음
- 제나디 베스노프는 나라마다 자체적인 정보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따라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꺼려 하는 경향이 있는데, 러시아 또한 이와 같은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교통부는 2030년까지 연간 70억 개의 전자운송장을 발급하여 처리한다는 계획임

■ 러시아, 올해부터 법적 효력을 가진 전자운송장 발급 및 처리 시범사업 추진

- 2021년 처음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전자운송장을 통해 러시아와 벨라루스 간의 화물이 운송됨
- 이 같은 시범 프로젝트에는 X5 Retail Group, Servolux, Belwest-Reetail, Samsung Electronics, Food Milk사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러시아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수입품에 대한 전자문서를 안정적으로 교환하는 것과 연방 세금 처리 시스템을 단순화하는 한편, 러시아 수입업자의 비즈니스 처리 절차를 쉽고,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있음

김은미 자료 입력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weekly_kmi@kmi.re.kr/051-797-4942)

참고자료

- a) https://logirus.ru/news/transport/rzhd_khotyat_perevesti_na_elektronnyy_dokumentoborot_multimodalnye_perevozki.html (2021.4.2. 검색)
- b) https://logirus.ru/news/transport/ekspert_elektronnymi_transportnymi_nakladnymi_poka_okhvacheno_menee_10_perevozok.html (2021.4.2. 검색)

러시아 푸틴 대통령, 극동 개발 부진 이유를 묻다.

■ 러시아 대통령, ‘극동 개발 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 분석’하라고 지시

-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극동이 오랫동안 러시아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 있는 원인과 결과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 분석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또한 극동 연방 지구와 북극의 발전에 대해 합의되었던 것과 정해진 과제에 대해 잊으면 안 되며 이미 설립된 기반에서 나아가야 한다며 연해주에 있는 즈베즈다(Zvezda) 조선소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의 성과를 언급함과 동시에 2017년 승인된 극동의 인구통계학적 정책 개념을 인용하며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 러시아 인민전선(All-Russia People's Front, ONF)의 자료를 토대로 극동 연방 지구에 응급차가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것을 언급하면서 극동 의료 조치를 비판하는 한편, 보건의료 발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요구하였음

■ 비싼 물가로 극동 연방지구 주민들의 의식주 생활이 더욱 어렵다고 주장

- 극동 지역은 러시아 전체의 41%를 차지하는 거대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교통수단의 이용 요금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이 같은 비싼 교통요금 때문에 야쿠티아, 하바롭스크, 연해주 등 극동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은 평생 캄차카에 가본 적이 없으며, 갈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임
- 러시아 대통령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대 항공권을 도입하도록 했지만 ‘마가단-모스크바-마가단’의 항공기 일반권은 2만 2,000루블, 우대권은 2만 400루블로 4인 가족 기준으로 8만 1,600루블이며, 휴가 시 필요한 숙박비용까지 합산할 때 30만 루블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음
- 그는 또 상당수의 극동 주민들의 급여가 식음료와 공동주거비에 모두 지출되어 최소 2~3년에 한 번 가는 휴가를 위해 저축을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음
- 러시아 극동지역의 식료품 가격은 매우 높은 것으로 악명이 높는데, 예컨대 캄차카 지역의 체리 판매가격이 6,500루블/kg에 달하고, 야쿠티아 지역의 감자 판매가격은 380루블/kg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아나톨리 비보르니(Anatoly Vyborny) 통합 러시아당의 러시아 국가 두마(하원) 의원을 비롯한 모스크바의 고위 관료들은 극동 지역의 식료품 가격이 상승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그와 같은 거짓 소식을 퍼트린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페도트 투무소프(Fedot Tumusov) 야쿠티아 국가 두마의원은 야쿠츠크 가게에서 가장 저렴한 식료품 가격(치즈 1,000루블, 지역특산 물고기 2,500루블)을 통합 러시아당에

제시하면서 다른 곳은 이보다 더 비싸다고 비판하였음

- 야쿠트 마을의 경우 계절적인 이유로 도로가 운영되지 않는 4월에는 비행기로 식료품이 공급되므로 물가가 다른 곳에 비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생활이 레닌그라드 봉쇄 시기의 삶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임
- 또한, 월 소득의 2/3까지 공공요금으로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연금 수급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라는 비판도 있음

■ 우대 주택담보대출로 은행은 부유해지나 극동지역 주민 주거지 문제 열악

- 극동 연방 지구의 또 다른 문제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없다는 것이며, 대부분의 주민들은 전쟁 직후 건설된 임시 건물 같은 판잣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형편인데, 러시아 정부는 2020년 극동 지역이 주택건설 부분에 급성장하고 있다고 언급함
- 통합 러시아 당은 다시 한번 바이칼-아무르 철도(Baikal-Amur Mainline, BAM) 지역의 주택 담보대출을 확대하고, 극동 지역의 주거 접근성을 높이려는 방안을 극동 연방 지역 위원장과 니키타 스타시신(Nikita Stasishin) 러시아 건설 주택부 차관과 협의하고 있음
- 드미트리 코빌킨(Dmitry Kobylkin) 통합 러시아당 총회 임시 사무차장 대행은 전문가들은 사전 계산을 통해 바이칼-아무르 철도 지역 내 주민들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물가에 큰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음
- 바실리 오를로프(Vasily Orlov) 아무르 지역 주지사는 바이칼-아무르 철도 지역에 신규 주택을 짓는 것이 흔치 않아 2차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많고, 청년층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참여자들의 요구 조건을 건설 주택부와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임
- 통합 러시아 당은 바이칼-아무르 철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장기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인수할 것을 제안했음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극동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극동 연방 지구 내 식료품(설탕·식물성 기름) 가격안정 명령을 내렸으나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의료 정책의 실패의 원인 규명하라고 지시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블라디미르 솔로도프 (Vladimir Solodov) 캄차카 주지사는 기존에 편성된 예산에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 허수를 확인하고, 의료, 교육, 사회 지원 부문의 예산을 삭감하는 조치를 하였음

강하람 리porter,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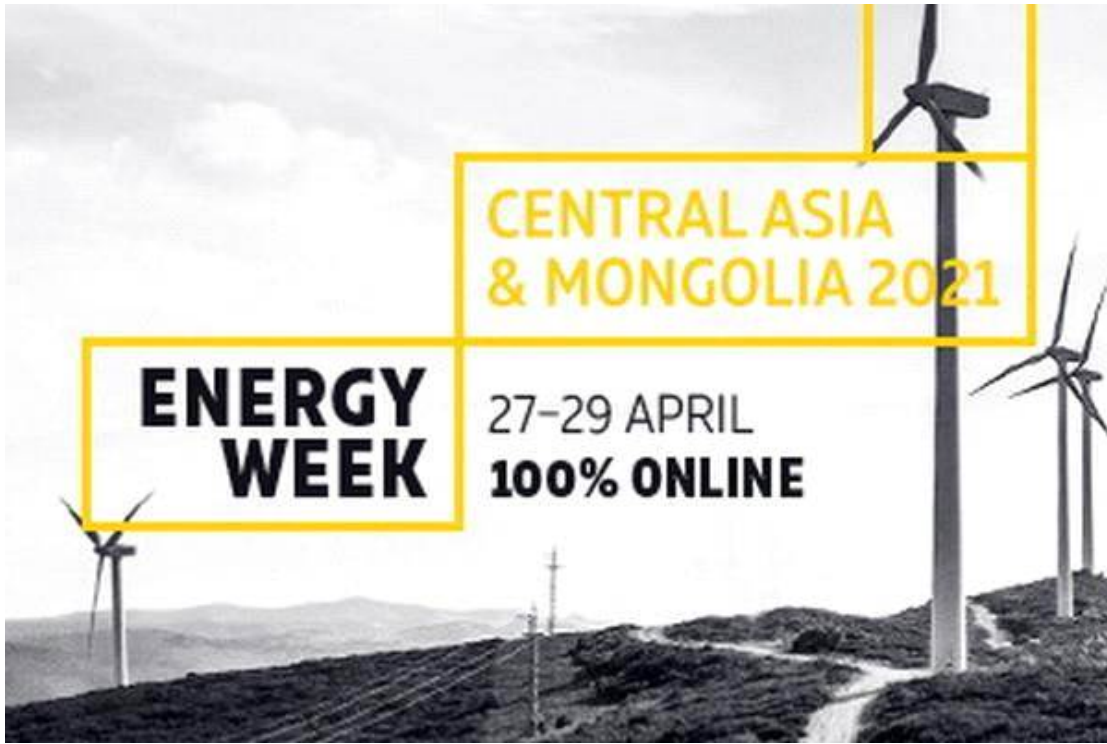
(wish125@hufs.ac.kr)

참고자료

- a) <https://rusrand.ru/analytics/putin-poruchil-vyyasnit-pochemu-ne-razvivaetsya-dalniy-vostok-pomojem-prezidentu> (2021.3.29. 검색)

중앙아시아·몽골, 온라인 에너지 위크 개최 예정

그림. 중앙아시아 & 몽골 2021 에너지 위크



자료: <http://www.uzdaily.uz/en/post/64505>

■ 국제 투자 컨퍼런스인 ‘2021년 중앙아시아·몽골 에너지 위크(Energy Week Central Asia & Mongolia)’가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될 예정임^{a)}

- 이 ‘에너지 위크’에는 우즈베키스탄(Uzbekistan), 카자흐스탄(Kazakhstan), 키르기스스탄(Kyrgyzstan), 타지키스탄(Tajikistan)과 몽골(Mongolia) 측 관련 인사와 다국적 에너지 기업들이 참석할 예정임
- 금융권에서는 유럽부흥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 독일대안당(Alternative für Deutschland, AFD), 독일재건은행(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KfW),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네덜란드개발은행(Dutch entrepreneurial development bank, FMO) 등이 참석할 예정임
- 에너지 기업으로는 전력개발회사인 사우디 아크와 파워(ACWA Power), 풍력 발전기업으로는 프랑스 토탈 에렌(Total Eren), 이탈리아(Voltaia), 노르웨이 NBT AS, 미

국 악시오나 에너지아(Acciona Energia), 덴마크 베스타스(Vestas) 등이 참석하며, 태양광 발전기업으로는 영국 콘투어글로벌(ContourGlobal), 캐나다 스카이파워 글로벌(SkyPower Global), 중국 유니버설 에너지(Universal Energy), 라이젠 에너지(Risen Energy), 스페인 FRV(Fotowatio Renewable Ventures), 스케텍 솔라(Scatec Solar)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수력 관련 기업인 스페인 코브라 그룹(Grupo Cobra)과 유럽 최대 엔지니어링 기업인 독일 지멘스(Siemens) 등도 참석 의사를 밝혔음

■ 국제 기업 및 금융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수력, 태양열, 풍력, 수소 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프로젝트 발굴, 해외 투자 및 첨단 기술의 유치가 목적임^{a)}

- 이 행사의 개최 목적은 국제 기업과 금융 기관 간 협력을 촉진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저장 분야의 프로젝트를 발굴해 해외 투자와 첨단 기술을 유치하기 위한 것임
- 또한 이 행사에서는 유망한 건설 프로젝트, 현재 예정된 사업계획 논의, 재생에너지 사업지원 및 자금 조달 계획,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공급망 지속 방안과 기타 긴급한 사안 등이 논의될 예정임

김지영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iyeong111@kmi.re.kr/051-797-4765)



주요 통계



표. 2021년 2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

(단위: 백만 톤, %)

수역*	건화물	액체화물	합계	2019/2020 증가율
극동지역	11.12 (+12.4%)	6.15 (-5.0)	12.27	+5.3%
북극해	2.01 (-8.0%)	5.3(-9.51%)	7.31	-9.1%
발트해	8.26(+7.4%)	9.69(-19.8%)	18,5	-9.4%
아조프-흑해	9.3 (+20.3%)	12.57(-12.7%)	21.87	-0.7%
카스피해	0.16 (-28.7%)	0.39 (-3.6%)	0.96	-14.4%
합계	30.8(+10.9%)	34.0(-13.3%)	64,8	-3.2%

* 주: 극동해역: 블라디보스톡, 자루비노, 올가, 포시에트,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바니노, 소비초카야가반, 데-카스트리스, 네벨스크, 홀름스크, 프리고로드노예, 마가단,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스키

북극해: 무르만스크, 칸달라크샤, 나리안마르, 두딘카, 아르한겔스크, 오네가, 바라데이, 페벡, 사베타

발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리모르스크, 브보스크, 비소츠크, 우스트-루가, 칼리닌그라드

아조프-흑해: 노보로시스크, 겔렌지크, 투압세, 타간로크, 아조프, 로스토프 나 도누, 다망, 템류크, 카프카즈

카스피해: 아스트라한, 올라, 마하치칼라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051-797-4776)

참고자료

a) [https://portnews.ru/news/308733/\(2021.3.29. 검색\)](https://portnews.ru/news/308733/(2021.3.29. 검색))

b) [https://portnews.ru/news/310029/\(2021.3.29. 검색\)](https://portnews.ru/news/310029/(2021.3.29. 검색))

표. 2021년 1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

(단위: 천 달러)

EAEU 코드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01-24	식료품 및 원자재	529,312.9	40,227.2	1,478.6	615.9	530,791.5	40,843.0
25-27	광물 제품	463,895.0	17,307.7	32,637.0	9,976.5	496,532.0	27,284.2
27	연료 및 에너지 제품	441,691.2	17,025.3	152.3	-	441,843.6	17,025.3
28-40	생고무 화학 제품	3,143.6	45,027.1	238.7	592.5	3,382.3	45,619.7
41-43	가죽원료모 피 제품	0.8	1,305.6	7.6	-	8.4	1,305.6
44-49	목재 및 펄프, 종이 제품	48,845.3	4,994.0	146.2	13.1	48,991.5	5,007.2
50-67	섬유, 섬유제 품 및 신발	141.3	35,074.9	161.7	169.7	303.0	35,244.6
72-83	금속 및 금속 제품	113,381.5	36,120.6	82.9	2,352.6	113,464.4	38,473.2
84-90	기계류	6,589.3	306,984.9	307.3	822.7	6,896.6	307,807.6
68-71, 91-97	기타	333,706.4	34,342.4	28,376.9	385.8	362,083.3	34,728.2
	합계	1,499,016.1	521,384.4	63,436.8	14,928.9	1,562,452.9	536,313.3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051-797-4776)

참고자료

a) [http://dvtu.customs.gov.ru/folder/230467\(2021.3.31. 검색\)](http://dvtu.customs.gov.ru/folder/230467(2021.3.31. 검색))

표. 2021년 1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입 규모

(단위: 톤, 천 달러)

EAEU 코드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03	갑각류 연체동물	68,727	141,841.8	242	1,354.4	1	40.0	-	-	68,728	141,881.8	242	1,354.4
0303	냉동수산물	60,797	61,826.8	139	795.8	1	40.0	-	-	60,798	61,866.8	139	795.8
03031	연어	994	3,326.5	-	-	-	-	-	-	994	3,326.5	-	-
030331	광어	38	169.0	-	-	-	-	-	-	38	169.0	-	-
030332	가자미	58	50.0	-	-	-	-	-	-	58	50.0	-	-
030339	기타 넙치류	70	30.3	-	-	-	-	-	-	70	30.3	-	-
030351	청어	13,479	7,748.9	-	-	-	-	-	-	13,479	7,748.9	-	-
030363	대구	2,869	8,689.8	-	-	-	-	-	-	2,869	8,689.8	-	-
03036 70000	명태	36,709	33,866.5	-	-	-	-	-	-	36,709	33,866.5	-	-
03038 93	농어	21	51.5	-	-	-	-	-	-	21	51.5	-	-
030391	알류	913	2,292.6	-	-	1	40.0	-	-	915	2,332.6	-	-
030399	지느러미, 머리, 꼬리 및 기타 식용 어패류	266	351.7	-	-	-	-	-	-	266	351.7	-	-
0304	생선 필레	3,038	7,415.2	58	285.0	-	-	-	-	3,038	7,415.2	58	285.0

0305	훈제 생선, 생선 가루	21	29.9	22	120.8	-	-	-	-	21	29.9	22	120.8
0306	갑각류	2,771	66,403.7	17	108.4	-	-	-	-	2,771	66,403.7	17	108.4
030614, 030633, 030693	게	2,534	64,886.0	-	-	-	-	-	-	2,534	64,886.0	-	-
0307	연체동물	1,409	3,879.0	-	-	-	-	-	-	1,409	3,879.0	-	-
03072	가리비	380	562.4	-	-	-	-	-	-	380	562.4	-	-
03074, 03075	오징어 및 문어	957	2,756.5	6	44.4	-	-	-	-	957	2,756.5	6	44.4
03079	기타 연체 동물	73	560.1	-	-	-	-	-	-	73	560.1	-	-
0308	수생 무척추 동물*	691	2,287.3	-	-	-	-	-	-	691	2,287.3	-	-
03081	해삼	8	94.6	-	-	-	-	-	-	8	94.6	-	-
03082	성게	650	2,179.1	-	-	-	-	-	-	650	2,179.1	-	-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주: 갑각류 및 연체 동물 제외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051-797-4776)

참고자료

a) [http://dvtu.customs.gov.ru/folder/230467\(2021.3.31. 검색\)](http://dvtu.customs.gov.ru/folder/230467(2021.3.31. 검색))